

# 문화적 관점에서 본 영어 공용어화

조동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논의의 단서

영어 공용화론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망상』(나남출판사, 2001)이라는 책을 써서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민족문화가 경쟁력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해 그 말을 책의 부제로 내 걸었다. 자세한 논증은 그 쪽으로 미루기로 하고,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일부 간추려 이하의 논의를 전개한다.

영어를 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영어를 잘 한다고 한다. 그러나 영어를 잘 못하면 공용어로 할 수 없다. 영어를 잘 하면 공용어로 할 필요가 없다. 어느 쪽에서 따져도 말이 되지 않는다. 영어를 공용어로 해야 하는 이유는 영어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영어를 공용어로 하려고 하는 불가능한 시책을 무리하게 밀고 나가면 혼란과 파탄을 일으켜 우리가 이미 지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그러나 이치가 이처럼 명백하다고 간단하게 말하고 말 수는 없다.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의 이면에 감당하기 어려운 망상이 도사리고 있어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강대국의 세계제패 음모에 말려들어 생긴 자아

상실의 증후여서 겉으로 내세우는 말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고 말아서 는 타격을 받지 않는다. 세계사의 방향을 바로잡는 투쟁이 지구 전체의 범위에서 벌어지는 데 동참해야 해결책이 생긴다.

인류 역사는 강대국의 횡포에 맞서는 피해 민족 저항의 역사로 전개되어 왔다.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싸움이 한층 격렬해지고 전 생활의 폭으로 확대되었다. 지금의 초강대국 미국 중심의 세계화를 언어 사용에서까지 받아들이라는 압력이 거세게 밀어닥쳐 민족문화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 2. 영어가 말아야 하는 구실

영어는 어떤 언어인가? 영국의 국어이고 공용어이다. 영미의 식민지통치를 받다가 독립한 케냐,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국어를 확립하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한 탓에 영어가 사실상의 공용어로 사용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영어는 사실상의 공용어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고 연방헌법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발의가 계속 있었어도 통과되지 않았다. 주헌법에서는 그렇게 한 곳이 있으나 대법원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영어를 법제적인 공용어나 국어로 하지 못하는 것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인하지 못하고, 또한 여러 언어를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미국의 국익 신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모습은 안팎이 서로 다르다. 대외관계에서 패권을 장악한 미국은 안에서 이루지 못한 단일화를 밖에서 이루려고 한다. 미국 중심의 단일화에 편승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추종자들이 곳곳에 있어 그 뜻을 지나칠 정도로 받들어 미국 영어를 우상으로 섬긴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도 그 때문에 생겼다.

영국의 국어인 영어를 세계인의 국어로 할 수는 없다. 미국에서도 법제적

인 공용어가 아닌 영어를 세계의 공용어로 제정할 수는 없다. 영어가 널리 쓰이는 것은 교통어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어는 모국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류하는 데 필요해서 어느 한 모국어를 교류 수단으로 받아들인 결과, 널리 사용되는 언어이다.

교통어를 사용한 내력은 오래된다.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가는 공식문서에서는 문명권 전체에서 함께 받드는 보편 종교의 언어인 공동문어가 사용될 때에도, 일반인은 용법이 까다롭지 않아 배우기 쉬운 구어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해 교통어로 사용했다. '교통어'라고 번역한 'lingua franca'는 직역하면 '프랑스어'이다. 중세 때에 프랑스 남부지방의 언어 프로방스어가 십자군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어, 그런 말이 생겼다. 그 당시 유럽의 공동문어인 라틴어는 배우기 어려워 학자가 아닌 예사 사람들은 프로방스어를 사용했다.

이슬람교가 널리 퍼지면서 교류가 활발해져 교통어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슬람문명의 공동문어인 고전아랍어는 유식한 사람들의 언어이고, 상인들은 아랍문자를 사용하고 아랍어 어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구어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해 함께 사용했다.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여러 섬에서는 말레이어가, 동부 아프리카 일대에서는 스와힐리어가 그 좋은 예이다. 지구상의 다른 교역권에도 그 비슷한 성격의 교통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고가고 물자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는 오늘날의 교통어가 있어야 한다. 영어가 그 구실을 하는 것이 불만이라고 해서 다른 언어로 대치하자고 할 수는 없게 되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해, 영어를 잘 배워 능숙하게 사용하려고 힘쓰면서, 제국주의의 침해를 받지 말고 패권주의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 받아들여 사용하는 쪽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영어가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라는 비난을 면하고 대등한 국제관계를 바람직하게 전개하는 데 기여하는 교통어 노릇을 제대로 할 수도 있다.

우리 한국은 모국어를 국어로 하고 공용어로 하는 데 모범을 보이고 있는 나라이다. 과학적 원리를 독창적으로 갖추어 만든 고유문자로 이룩한 유산이 문화의 주체성을 든든하게 보장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문맹자가 거의 없고,

교육과 출판이 대단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 점에서 식민지를 겪고 독립한 모든 제3세계 나라의 부러움을 자아낸다. 영어의 지배에서 벗어나 모국어를 국어로 하고 공용어로 해서 민족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국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그런데 근래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혼란을 일으킨다. 국어와 영어를 이중의 공용어로 사용하다가 어느 시기에는 국어를 없애자고 말하기까지 한다.

영어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몸을 던져 기꺼이 희생물이 되어야 남들보다 앞설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심한 착각이다.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택할 길이다. 영어의 부당한 지배를 시정하고 인류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평등한 관계에서 자기의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투쟁을 위해 조상 전래의 지혜와 오늘날의 역량을 발현해야 한다. 세계화를 위해 진정으로 기여하는 길이 여기 있다.

영어 때문에 우리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시련이 심각하게 닥쳐온 것이다. 세계에 있는 수많은 언어 가운데 오직 영어만 우상 노릇을 하면서 인류를 괴롭히는데, 그것은 영미가 주도한 언어 제국주의가 깊이 침투해서 만들어낸 질병이다. 그 해결책이 영어를 몰아내는 것은 아니다. 영어가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 분수를 지켜 교통어 노릇을 착실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영어를 함께 가꾸는 데 국어가 확립되어 있는 한국이 적극 기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 3. 문화의 다양성이 지니는 가치

과거의 교통어는 국가를 배경으로 세력을 퍼지 않았으며, 평등한 관계에 있는 사용자들이 필요해 자진해서 받아들였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 문제를 일으킨다. 영어는 영국의 식민지 통치와 함께 전파되고, 오늘날은 미국의 힘

이 팽창되게 하는 수단이고 그 결과이다. 영어의 지배는 문화제국주의의 잔재이거나 새로운 패권주의의 음모라고 규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이루어진 상이한 문화창조는 모두 소중하다. 우열을 가려 어느 것은 버리고 어느 것은 이어나가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자기의 민족문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민족의 문화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상대방도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상호이해의 출발점이다. 자기 민족문화의 기준으로 다른 민족의 문화를 평가해 민족문화의 우열을 가르는 것은 부당하다. 다른 민족의 문화를 척도로 삼아 자기 민족문화를 폄하하는 것도 부당하다.

민족어의 다채로움은 인류의 자랑이다. 인류가 사는 터전인 지구의 자연계에 수많은 동식물이 있는 것 못지않게 큰 자랑이다. 그런데 동식물의 종이 멸종되는 것은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야단스럽게 떠들고 국제적인 운동을 벌여 막으려고 하면서, 수많은 민족어가 없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여겨 문제로 삼지도 않는다. 문명의 다양성은 생태계의 다양성 못지않게 소중하다. 민족문화를 위협받지 않고 누려야 마땅한 인권은 함부로 짓밟으면서 생물의 종은 멸종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인류가 애써 노동하고 생산하는 이유는 잘 살자는 데 있다.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 물질적인 풍요를 향유하면 잘 산다고 할 것이 아니다. 삶의 질 향상이 더욱 긴요한 과제이다. 삶의 질 향상은 문화적인 만족을 통해 이룩해야 한다. 문화적인 만족은 문화가 단일화되는 데서 얻을 수 없다. 다양한 문화를 각기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고 재창조해야 삶의 질이 향상된다. 각기 자기 언어로 된 문학을 즐기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기능주의나 실용주의 관점에서 사태 변화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한다. 영어를 함께 사용해 경제활동의 능력을 극대화하면 삶이 풍요로워지리라고 생각하지만, 단일화나 균일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요구와 정면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의 원동력인 창의적인 사고를 감퇴시킨다. 그것은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는 기술 발달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희생이

라고 변명하지 말자. 진실은 그 반대이다.

정보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재화인 인터넷 창조물은 기계적인 단일화나 균일화를 거부하는 개성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다채롭게 개발해야 더욱 수준 높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점을 두고 나라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인류 전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민족문화의 다양한 유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는 독점을 이룩해, 다양화를 거부하는 단일화를 수단으로 삼아 자기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쪽에서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로막으니 그대로 둘 수 없다.

언어의 단일화는 문화의 단일화를 초래한다. 인류가 이룩한 다양한 문화 유산을 버리는 결과에 이른다. 각기 자기 언어로 이룩한 구두 또는 기록의 창조물은 삶의 경험과 소망을 가장 알뜰하게 담은 소중한 창조물인데, 그 일부는 영어로 번역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쓰레기통에 넣으면 정신적인 빈곤이 심각해진다. 생물의 종이 대폭 멸종하는 것 같은 재난이 인류의 정신세계에서 벌어진다. 자연에서도 문화에서도 다양성은 생명이 보존되고 진화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 다양성을 없애면 근친교배가 멸종을 초래하는 것과 같은 사태가 문화에서도 벌어진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유산을 상실한다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다.

민족문화의 역량을 발휘해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명제는 어느 민족에게나 타당하다. 그러나 실제로 그럴 수 있는 형편인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지나치게 비대해 배타적인 우월성을 주장하는 민족문화는 인류 문명을 왜곡시키는 구실을 한다. 민족문화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 더 큰 일을 생각할 수 없다. 그 양극단이 아닌 중간에 위치한 민족이라야 민족문화와 인류 문명을 바람직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

#### 4. 우리 민족의 위치와 사명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한

국어는 세계 여러 언어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용자 수가 많은 언어를 15위까지 들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 수의 단위는 백만 명이다.<sup>1)</sup>

표준중국어	885
스페인어	332
영어	322
벵갈리	189
힌디	182
포르투갈어	170
러시아어	170
일본어	125
독일어	98
중국 吳語	77.1
자바어	75.5
한국어	75
프랑스어	72
월남어	67.6
텔레구	66.3

한국어는 사용자 수에서 12위인 언어이다. 사용자 수가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보다는 적으나,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보다 많다. 한국어는 대단치 않은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민족이 약소민족이라는 생각은 실상과 어긋난다.

---

1) <http://www.sil.org/etnologue/top199.html>. 아랍어는 각국의 구어를 각기 별도로 계산해서 15위 안에 들지 않았다. 중국의 吳語는 양자강 하류 上海 일대에서 사용하는 표준중국어와는 다른 언어이다.

사용자가 많은 언어 가운데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는 여러 나라에서 함께 사용한다. 표준중국어, 벵갈리, 힌디, 러시아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 吳語, 자바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다른 언어 사용자들도 있는 다언어사회이다. 그런데 한국어 사용자는 일부가 외국에 나가 있고 대부분 한반도 안에 모여 있다. 한반도 안에는 다른 언어 사용자가 거의 없다.

한국어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단일민족의 나라는 아니다. 역사의 오랜 시기 동안 다른 민족도 한국에서 살았다. 지금도 외국인 거주자들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언어 또는 다민족의 문제가 없는 가장 큰 나라이다. 한국보다 작은 나라도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을 찾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어를 국어로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반대 의견도 없다.

한국어는 표준화가 잘 되어 있고, 방언차가 아주 적다. 훈민정음을 창제해 문자생활을 불편 없이 하게 되면서 시작된 언어의 표준화가 18세기 전후에 크게 발달한 국문소설을 통해 대폭 확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글을 읽고 썼다. 1930년대에 표준어를 정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추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하는 동안에 한국어를 없애고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날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도 국어는 서로 같다. 차이가 있는 것은 정치 이념에 관한 말뿐이다.

한국어는 사용자가 많지 않으므로 영어의 공격을 견디어내기 어렵고, 한국은 작은 나라이므로 주권을 지킬 수 있는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망상이 그런 패배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파헤쳐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인이 되지 못한 좌절감을 민족에 대한 저주로 해소하려는 사람들까지도 설득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순위가 12위인 한국어는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의 말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수가 사용하는 언어의 선두라고 할 수도 있다. 선진국의 말석이나 후진국의 선두나 하는 것과 같은 문제이다. 앞섰다고 생각되는 쪽을 보면 열등감을 느낄 수 있지만, 뒤따르는 쪽이 동지라고 여기면 사명감이 생긴다.



우리가 민족어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과업은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다. 사용자 수에서 12위에 있고 국어의 지위가 확립되어 있는 한국어가 영어의 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마침내 사멸하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의 대참사이다. 그것이 불가피한 추세라면, 사용자 수가 더 적고 국어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다른 많은 언어는 한층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다. 생태계의 파괴가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러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더 정확하게 말해 알지 못하고, 한국인 스스로 선택해서 한국어를 버린다면 그것은 세계인의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한 어리석은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빈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한다. 공연히 자기를 비하해 자살을 획책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국이 소수언어 사용자의 선두에 서 있다는 것은 제3세계의 선두에 서 있다는 것과 상통한다. 소수언어 사용자들 가운데서 가장 힘이 있는 쪽이니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방어선을 잘 지켜 흔들림이 없게 해야 한다.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신생독립국 가운데 한국은 민족문화를 다지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특히 모범이 되어 제3세계의 발전 가능성을 입증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제3세계의 선두에서 나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세계사 전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조금 노력하면 제1세계에 들어선다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제1세계에 들어서려면 남들을 피해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될 나라가 없다. 제1세계에 들어선다고 해도 말석에 지나지 않는다. 제1세계의 특권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비난은 함께 들으면서 망하는 길에도 동행하는 것은 억울하다.

제1세계의 말석이 되어 한 시대의 막차를 타지 말고, 제3세계의 선두에서 다음 시대를 여는 데 적극 기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선 쪽을 따르는 것보다 뒤떨어진 쪽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일이다. 그

래야만 우리 자신이 왜곡되지 않고,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 과거의 추종자가 되지 않고, 미래의 건설자가 되는 길이 거기 있다. 선진국 추종의 수입학을 하지 말고, 제3세계의 관점에서 세계사의 미래를 창조하는 지침이 되는 창조학을 하는 원동력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

우리도 언어 강대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말을 널리 보급해서 함께 사용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다. “한국어를 국제어로!”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희망이다. 민족어를 잘 가꾸고 문화창조의 동력으로 삼는 데 모범을 보이는 것은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의 의의를 알고, 더 잘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5. 인류를 위한 민족문화 공헌

우리말을 사랑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우리말을 사랑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사랑이고 내용이 없다. 우리말이 그 자체로 우수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한글이 좋은 문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들에게는 소용되지 않는 말이다. 우리말을 가지고 이룩한 문화창조의 성과 가운데 어떤 것이 인류를 위해서 널리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의의를 가지는가? 이것을 밝혀 논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계승해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인가? 이것이 최종적인 문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알고 비교 연구에 힘써야 한다. 다른 민족과 화합하기 위해서는 같은 것을 두고 다투지 말고, 다른 것을 갖추어 서로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문명은 보편적 가치를 지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도 동일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를 특별히 지칭하는 말이다. 중세에는 공동문어와 보편종교를 공유하는 영역마다 그 나름대로 키운 문명이 민족문화와 공존하면서 서로 자극을 주었다. 근대에는 다른 곳의 중세문명은 의의를 부정하면서 유럽문명만 보편적인 가치를 가졌다고 강변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강자의 민족문화가

그 의의를 구체적으로 발현하면서 인류문명을 창조한다고 했다.

이제 그런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 차등의 관점이 아닌 대등의 관점에서 세계문명을 이룩하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유럽문명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여러 문명권에서 이룩한 보편적 가치를 모두 계승하고, 어느 민족이 창조했다라도 인류 전체를 위해 소중한 의의를 가진 문화는 한데 모아야 한다. 문명이나 문화의 우열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특수성에 보편성이 있고, 서로 다른 가운데 공동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찾아내야 한다.

비교 평가에서 우월한 문명권에서 우수한 문화를 창조한 쪽을 선진국이라고 하고, 선진국을 따르며 배워야 한다고 한 사고방식을 청산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의 단점을 찾아서 고치는 것을 무엇보다도 긴요한 과제로 삼았다. 선진국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의 단점이라고 하고, 단점을 고쳐 그쪽과 같아져야 선진화된다고 했다. 그러나 단점을 고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고친다고 해도 앞설 수는 없다. 단점의 반대쪽은 장점이다. 장점을 찾아서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고, 노력하면 성과가 바로 나타난다.

장점이란 우리가 자위를 하는 데 일방적으로 소용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인 비교에서 확인되는 가치이다. 우리 장점이 무엇인가 바로 알아 살려나가면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나갈 길을 찾고, 인류를 위해 널리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육을 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지표를 '단점 고치기'에서 '장점 살리기'로 바꾸어야 한다.

개인도 적성이나 능력을 알아 직업을 택해야 한다. 만능이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나라도 민족도 모든 것을 잘 해야 하는 시대가 아니다. 국제적인 비교에서 최상의 것만 살아남는 시대임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장기를 찾아서 키우는 데 힘써야 한다. 우리가 겪어온 역사, 창조한 문화, 가진 능력을 모두 광범위한 비교 연구를 곁들여 밝혀내는 데 힘써야 한다.

민족문화의 특성을 원형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역사를 창조해 온 경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인도나 중국의 제국과는 다른 민족국가를 일찍부터 이룩해왔다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문명권의

중심부인 중국에서 받아들인 동아시아 공동의 문명을 재창조하면서 민족문화를 발전시킨 경험이 풍부하다. 문명권의 중간부에서 공동문어 문명과 민족어 문화를 서로 대등하게 갖추어 서로 자극이 되게 하고 하나로 합치고자 한 점이, 문명권 주변부에 자리 잡은 일본과도 다르다.

문명권의 중심부인 중국은 공동문어 문명에 치우쳐 민족어 문화를 키우는 데 소홀했다. 문명권의 주변부인 일본은 공동문어 문명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서 민족어 문화를 육성하는 데는 일찍부터 대단한 열의를 가졌다. 중국은 중세 전기까지 위대한 나라였고, 일본은 근대의 발전이 눈부신 것이 그 때문이다. 우리는 그 중간 시기인 중세 후기 창조에 커다란 구실을 하고,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사상의 창조를 위해 특히 힘썼다.

이제 근대를 극복하고 다음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근대의 역량을 키우고 중세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중세 동안에 자기 문명권에서 이룩한 정신 문명의 유산을 계승해 근대 유럽문명권에서 이룩한 물질 문명과 합치는 세계사적 과업 수행의 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문명의 충돌을 화합으로 해결하는 최상의 방안이 거기 있다.

## 6. 마무리

영어를 공용어로 하지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실용주의의 사고방식을 지녔다고 자부한다. 국어 존중의 헛된 명분을 버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고 이익이 큰 쪽을 택하자고 한다. 그러나 실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검토하면 사태가 더욱 명확하다. 남들이 이미 잘 하고 있는 일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전략일 수 없다. 우리가 더 잘 하는 일을 힘써 개발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공용어로 삼아 학문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세계 학문의 새로운 발전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 그것이 경쟁력 향상의 길이다.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 속에서 보편적 가치를 발견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삼는 데 힘을 써야 한다. 주체적인 사고는 자기 방어의 수단

이 아니고 창조의 능력이어야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 세계에 내놓을 생각을 가다듬어 글로 옮기는 데 필요한 훈련을 하는 것이 영어교육의 핵심 과제이다.

영어의 횡포는 세계사의 문제이다. 영어가 우상이 되어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기를 요구하는 불행을 도처에서 겪는다. 한국은 식민지 통치를 겪고도 국어를 온전하게 가꾼 나라의 본보기여서, 세계의 질병을 치유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 알려줄 의무가 있다. 우상 숭배의 해독에 빠져들려고 하지 말고, 인류의 불행을 해결하는 길을 찾는 데 앞장서야 한다.